

포스코 기틀 마련, 장경환 前회장 별세

포항종합제철 창립 요원으로 현재 포스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장경환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회장(사진)이 7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지난 1932년 경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11년간 대한중석에서 근무하다가 1968년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에 끌려 포항제철에 창립 요원으로 입사했다.

그는 '롬멜 하우스'로 불렸던 경북 포항시 영일만 해변 제철소 공사 현장의 건설사무소에서 숙식해가며 '실패하면 모두 영일만에 빠져 죽는다'는 각오



로 철강업체 포스코의 토대를 닦은 창립 멤버 21명 가운데 한 명이다.

고인은 16년간 포항제철에서 기획실장, 설비기술본부 부본부장, 판매·인사 담당 상무이사 등의 중책을 두루 역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 오전 9시다. 장지는 충남 천안시 천안공원묘원으로 정해졌다.

/정연우 기자 ywj964@



KB국민은행, 제이씨현시스템과 공급망금융 상품개발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제이씨현시스템과 '공급망금융 상품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제이씨현시스템의 유통망을 이용하는 중·소 구매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덕순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오른쪽)와 차중석 제이씨현시스템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마포에 '드림스퀘어 서울점' 오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 마포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복합기능형 체험점포인 '드림스퀘어 서울점'의 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왼쪽부터)정단비 서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0기 교육생,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원윤식 네이버 상무, 박영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아동복지시설 과학교실 봉사활동
롯데하이마트는 'Hi(하이) 과학교실' 보조교사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Hi(하이) 과학교실'은 방학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자제품 키트를 활용해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오는 29일까지 전국 10개 아동복지시설 소속 아동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 도시재생본부장 고희권 ◇ 부서장 △ 홍보실장 송진선 △ 경영관리실장 변한수 △ 법무실장 이상기 △ 신도시기획단TFT 단장 신경철 △ 도시사업처장 천호준 △ 주택원가관리처장 심상배 △ 도시재생계획처장 백대현 △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황수호 △ 부산울산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정경윤 △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정경환 △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공영규

부음

▲ 이돈형 씨 별세, 이민석·재철(제이씨컨설팅 대표·전 굿데이 체육부 기자)·숙희 씨 부친상=6일 오후, 여의도성모 장례식장 6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 02-3779-1526
▲ 박동윤씨 별세, 박충희(MBC 인권사회팀 차장)씨 부친상, 이선희(KBS 예능국 PD)씨 시부상 = 7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9일 ☎ 02-2227-7500

자기 합리화의 동물, 인간



진성오 소장의 심리카페

필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필자의 반에는 가난해서 옷을 잘 못 입고 당시 또래 여자아이들에 비해 좀 못생긴 여자 급우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학교에선 괴롭힘이 존재하지만 지금 같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잘못된 행동을 당시에는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군대와 학교가, 학생이 사병과, 선생님이 간부와 구분이 없었던 시대 탓과 군대의 신체적 폭력이 당연시되던 '군사부일체'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이 나쁘다는 개념 자체가 부재했고 그래서 학급의 남자 아이들이 그 여자아이를 많이 놀렸다.

그 때 필자가 왜 그런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 여자아이를 놀리고 장난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되는 아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촌스럽고 싸구려 티가 나는 옷과, 공부를 잘 못했던 것 등등이 그 여자아이를 골려도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보통 그런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듯 하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어린 나는 왜 그 여자 아이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괴롭혀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까 궁금하다. 5학년 짜리가 무엇 때문에 그 여자 아이를 골탕 먹이는 것에 대한 합리화가 가난과 공부 부합을 정당성의 이유로 생각했을까? 아마도 어린 필자는 분명히 그렇게 그 여자아이를 놀

려먹는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괴롭혀도 된다는 이유가 필요했던 것 같다.

어린 나이지만 그런 행동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행동이 주는 재미와 내가 악당이나 비겁한 어른들이나 하는 치졸한 행동을 썰매 내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그 때문에 나의 불편한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 찾아낸 나의 합리화가 그 아이가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놀려도 된다고 믿게 했을 것이다.

필자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안타깝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작동한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자신의 공격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을 배운다. 동생을 때리고 그 이유를 달 때 "애가 먼저 그랬어요"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런 아이의 정당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정당성이 논리적으로 보이면 우리는 더 잔인하게 행동 해 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인정한다.

악한 아이를 괴롭혔던 필자나, 폭력배들이 악한 상인들을 괴롭히는 것이나,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고용주, 배우자를 학대하는 부부, 저항을 포기한 용의자를 구타하는 경찰관이나 소수민족 사람들을 고문하는 폭군, 민간인들에게 잔혹행위를 하는 군인들 모두 행동의 구조는 같다. 트레비스라는 진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공격이 자기 정당화를 낳고, 자기정당화가 더 많은 공격을 낳는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똑똑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자기 이미지를 벗어나

는 행동을 할 때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정당화하는 본능이 있다. 이러한 자기 정당화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예수나 부처님 정도이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하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과오를 인정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는 작은 거짓말이 거짓말인지 잘 모르게 진화했다. 이러한 작은 거짓말은 생활과 연관된 모든 영역에 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거나, 부인이 자기 관리를 못해서 살이 찌서 바람을 피웠거나, 빨갱이는 나쁘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거나, 동성애자는 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벌주어야 한다거나, 낙태는 종교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거나,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매로 다스려야 한다거나, 내가 갑이니 내말을 따라야 한다거나 등등의 많은 이유로 상대 입장이란 하지 않을 그 많은 잔인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행한다.

하지만, 그 어떤 합리화도 논리에 타당성이 없고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인간은 그냥 내가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라는 본능으로 인해 어떤 논리라도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원인도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적어도 자기 정당화를 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볼 때 말이다.

늦은 사죄는 없다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5학년 때 친구가 흑시 이 글을 보면 진정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싶다. 그냥 필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었던 것이고 내가 잘못된 아이였던 것이라고... /당신의마음연구소장

거래소, 그룹홈 청소년 자립 강화 돕는다

‘꿈의 징검다리 사업’ 기부금 부산 그룹홈지원센터에 전달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은 7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그룹홈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꿈의 징검다리 종합지원 사업’의 기부금을 부산시 그룹홈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호현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과 장태순 부산시 그룹홈지원센터 센터장 및 서봉성 부산시 아동복지팀 팀장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그룹홈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생활시설이다.



조호현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왼쪽 첫번째), 장태순 부산시 그룹홈지원센터 센터장(가운데), 서봉성 부산시 아동복지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재단은 만 18세가 돼 그룹홈에서의 목적으로 퇴소해야 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독립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 IT, 미용, 요리 등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학습지도 및 장학금 지원, 문화정서활동, 심리치료 등 그룹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KT&G ‘상상 스테이지 챌린지’ 작품 공모

KT&G가 국내 창작극 지원 프로그램인 ‘제3회 상상 스테이지 챌린지’ 참여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상상 스테이지 챌린지’는 창작극 시장의 어려운 상황과 공연장 대관료 부

담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공연을 펼치기 어려운 창작 뮤지컬과 연극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획됐다.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1개 작품은 공연 제작비 1천만 원과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공연장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들은 8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KT&G 상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오는 2020년 3~4월에 공연 가능한 국내 창작 뮤지컬 또는 연극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